

SKT, ‘티딜’(T deal)에서 풍성한 설 준비하세요

**- ‘설맞이 특가대전’에서 한우와 홍삼∙과일 등 300여개 브랜드∙720개 품목 판매**

**- SKT 고객은 맞춤형 ‘핫딜’ 쇼핑 정보 문자로 구독…온라인 최저가 및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**

**- 중소상공인은 마케팅 비용 부담없어…’티딜’ 전체 매출에서 중소상공인 비중 96% 달해 ‘상생’ 플랫폼 자리잡아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.** |

**[2023. 1. 17]**

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[www.sktelecom.com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이 AI 큐레이션 커머스 ‘티딜(T deal)’에서 한우와 홍삼, 과일 등 300여 개 브랜드∙720개 품목이 참여하는 ‘설맞이 특가대전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.

‘티딜’은 빅데이터 분석 및AI 큐레이션에 기반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 SKT 고객들만을 위한 문자 쇼핑 서비스로, 온라인 최저가 및 무료배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
특히 중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비중이 96%에 달하고, 중소상공인들은 문자 발송 및 전용 온라인 페이지 등록 등 마케팅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요한 ‘상생’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.

SKT는 ‘설맞이 특가 대전’ 이벤트에서 1++ 등급 한우와 홍삼 및 과일·화장품 등이 이번 설에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.

SKT는 또 과거 이용고객들의 구매패턴을 감안할 때 설 기간 중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안마∙마사지기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.

이에 앞서 SKT ‘티딜’은 지난 10~13일 가전∙뷰티∙식품 등 분야 별 한정수량 판매에 나섰던 ‘설맞이 타임특가’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

‘티딜’은 AI 분석을 통해 고객별 맞춤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SKT 고객들은 핫딜쇼핑 정보를 문자로 구독하는 효과가 있다.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첫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도 많은 신규 고객들이 ‘티딜’을 만나고 있다.

‘티딜’은 문자 뿐 아니라 PC웹페이지(<https://pc.tdeal.kr/>)나 어플리케이션(App.)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. 또한 ‘선물하기’ 기능을 통해 타 통신사 고객에게도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.

이재원 SKT 광고사업담당은 “’티딜’이 준비한 명절 이벤트를 통해 SKT 고객들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챙기는 합리적이고 풍성한 설을 보내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**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담당 전략PR팀 박지웅 매니저 (02-6100-3832)**



